

第113回(定例會)

#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本會議會議錄

第2號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2001年 7月 5日(木) 10時10分

### 議事日程(第2次 本會議)

1. 區政質問의 件

### 附議된案件

1. 區政質問의 件 ..... 1面

(10時10分 開議)

○議長 金以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區政質問의 件

○議長 金以煥 의사일정 제1항 종로구청장에 대한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회의규칙 제6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종로구청장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본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15분으로 질문 접수순서에 따라 7월 5일 오늘은 李東奎議員 외 7인의 의원이 질문을 하고, 7월 6일 내일은 安載弘議員 외 6인의 의원이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시간은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회의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분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 제한된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일괄 질문과 오후 일괄 답변 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오전 일괄 질문과 오후 일괄 답변 방식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접수된 순서에 따라 李東奎議員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東奎議員 안녕하세요? 창신3동 출신의원 李東奎議員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종로구의회를 이끌어 나가시는데 여념이 없으신 金以煥 議長님과 金正大 副議長님!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가장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 발전과 20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鄭興鎭 區廳長님! 그리고 盧張鐸 副區廳長님을 비롯한 각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종로구 전체 직원, 지역언론사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충심으로 또한 위로와 감사를 드리면서 구정질문에 앞서 지난 6월 16일 故 崔康洵議員님의 영결식장에서 육성녹음으로 들었던 故 崔康洵議員님의 구정질문이 생각납니다. 늘 남을 배려하는 마음과 바른 정의감으로 매사에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셨던 이러한 고인의 정신에 깊이 고개 숙이며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 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종로구에서는 지난해 7월 1일자로 창신·승인지역 등의 쓰레기 수거체계를 구 직영에서 용역업체 대행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소행

정에 한해서는 주민 만족도라는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불만이 주민들로부터 끊이지 않고 답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본 의원은 쓰레기 수거 대행지역 확대를 하면서 여건이 매우 열악한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창신·송인지역부터 실시하게 된 근거와 사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행지역의 확대는 청소행정 재정자립도의 향상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의 청소행정 자립도는 어느 정도이며, 대행지역 확대에 따른 재정자립도의 증가율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정책을 변경 시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제반 사항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수거체계를 자주 변경함으로써 주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주민들로부터 많은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유감스럽게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해 7월 1일자로 쓰레기 수거를 용역업체에서 담당하면서 대형 생활폐기물의 배출 처리방법이 동사무소에 신고 납부 후 배출에서 용역업체 신고 납부 후 배출로 변경되었는데 이렇게 변경된 제도를 어찌된 일인지 8개월 후인 2001년 3월 1일부터 다시 동사무소 신고, 구청 직접 수거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시행 1년도 안되어서 대형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거 처리제도를 변경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구청장은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에 있어서도 직영 시에는 주3회 수거하였는데 용역업체에서 대행하면서부터는 주2회로 되었다가 금년 3월 15일 경부터는 다시 용역업체에서 상차장까지 수거 운반하여 적치해놓으면 구청 환경미화원이 상차장에서 이를 수거해가는 시스템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용역업체의 수거 운반 작업시간은 오후 7시에 시작하여 다음날 새벽 02시 30분 경이면 완료가 되는데 구청에서는 재활용품을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에 대개 수거해가게 됩니다. 구청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해갈 때 재활용품하고 일반 쓰레기가 섞여있는 봉투는

수거해가지 않습니다. 적치된 재활용품 중에서 구청에서 수거해가지 않는 쓰레기와 일부 양심적이지 못한 주민들이 무단투기한 음식물 쓰레기, 목재류 쓰레기로 상차장 주변은 지저분하기 짝이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지럽게 널려져 있는 쓰레기는 매일 아침 각 동의 공공근로자들이 처리하고 있으며 일할 인력이 없는 토요일 같은 경우는 동직원들이 직접 처리를 하는 그러한 실정임을 구청장님께서 과약이나 하고 계시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능 전환으로 청소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지만 동에서 청소업무에 대해 과거보다 오히려 더 많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 이러한 현상은 어찌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용역업체라고 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자기 회사에서 제작 판매한 규격봉투를 판매한 대금으로 고용한 미화원의 급여를 주고 회사를 운영합니다. 무단투기된 쓰레기는 당연히 수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규격봉투에 담지 않은 재활용품도 이를 이유로 수거가 잘 되리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민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한 수거체도를 자주 바꾼다는 것은 사전에 충분한 예측 및 검토 없이 우선 시행하고 보자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의 결과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은 무엇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아울러 동사무소에 신고한 대형폐기물이 2주일이 경과하도록 수거되지 않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 방안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6월 7일 본 의원은 동료의원들과 함께 종로구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시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창신동 23-315호에 소재하는 목재 파쇄장에서는 목재류만 파쇄하는 것이 아니라 냉장고도 분해 해체하고 있었습니다. 목재 파쇄장에서 냉장고까지 처리하게 된 경위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까마는 냉장고에는 냉매로 사용되는 프레온가스가 들어 있습니다. 이 프레온가스는 오존층을 파괴하고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매우 위험한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

문에 몬트리올 의정서에서도 2010년부터는 프레온가스의 사용을 전면 금지한 바 있습니다. 프레온가스는 공해물질로서 적절하게 처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목재 파쇄장에서 이에 대한 아무런 시설 장비 및 전문인력도 없이 마구잡이로 냉장고를 해체하는 것을 보고 본 의원은 내심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프레온가스 포집이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다고 한다면 종로구에서는 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고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해물질을 그대로 대기 중에 배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송파구에서는 폐가전제품을 처리하면서 냉장고에서 나오는 프레온가스를 포집기로 수거하여 전문처리업체에 무상 공급함으로써 공해도 예방하고 프레온가스의 재활용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바 송파구의 사례를 벤치마킹(benchmarking)해서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로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는 마땅히 단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단속은 교통의 장애 등을 고려해서 단속의 효과가 큰 지역을 우선 해야 할 것입니다. 교통에 장애요인이 미비한 이면도로 상에서의 주차단속이 게릴라식으로 단속스티커만 붙이고 황급히 갈 것이 아니라 최소한 사전 예고 등의 절차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창신3동 지역의 경우 창신초등학교 뒷편 영풍정길 일대 10통, 15통에는 주차시설이 전무하다시피 한 지역인데 구청에서 이 지역에 주차단속 예고장이라도 한번 붙이고 가면 수많은 주민들이 전화 또는 직접 본 의원을 찾아와 하소연합니다. 주차시설 하나 없는 이 지역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면 단속대상이 되지 않는 차량이 한 대도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지봉로변에 임시로 주차공간을 공식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연말쯤 지봉로에 노선버스가 운행되기 시작하면 창신동의 지봉로변 일대는 주차대란이 발생될 것이 불 보듯이 뻔히 보

이는 사실입니다. 이미 늦었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공영주차장 건립이 매우 시급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창신3동 동사무소에서 최근에 공영주차장 건립부지를 재선정하여 종로구청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신3동 10통, 15통, 16통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창신시장 옆 23-52번지 일대의 약 200평 규모의 기계식 공영주차장을 조속히 건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번째 노점상 단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종로는 노점상의 천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노점을 하는 경우에는 기업형 노점상도 다수가 있다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도로 상에서의 불법 주차는 즉시즉시 단속을 하면서 자동차 7, 8대를 주차할 만큼의 도로를 점유해서 통행을 방해하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너그러운 이유가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장사가 안되어 가게문을 닫아야 하는 점포를 가진 영세 상인과 기업형 노점상과의 형평성의 문제를 고려하여 적절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형 노점상에 대한 단속 문제는 조만간에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게 될 것입니다. 종로를 정말로 걷고 싶은 거리, 쾌적한 거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노점상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신3동에 인접해있는 창신초등학교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명문학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래 전부터 창신초등학교 앞으로 가자고 하면 택시기사들이 다 잘 알 정도로 서울시민에게 널리 알려진 랜드마크(landmark)이고 이렇게 창신동 주민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 학교 정문 앞에서 포장마차 영업행위가 밤새도록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통행 불편은 물론 취객들이 학교 담벽에 방뇨를 하여 지나는 여성분들이 눈길을 어디에 뒀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워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아침이면 소변 지린내 나는 냄새를 지우기 위해 어린이들이 물청소를 해야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구청 건설관리과에서 지속적으로고도 철거한 단속을 실시한 덕분에 노점 행위가 없어졌으며, 또한 공원녹지과에서 대형화분의 꽃도 여름 꽃으로 교체 식재해 주셔서 학교 앞 환경이 매우 밝아졌다는 주민들과 학교장의 칭송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을 대신해서 다시 한 번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노점상이 언제 다시 학교 정문 앞에서 종전처럼 영업을 할지 알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순찰 및 단속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낙산시민아파트 5개 동 철거부지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낙산시민아파트 5개 동이 철거, 서울시 주택계획과, 도시계획과, 공원과 등에 철거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문의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확정된 토지이용계획은 없으며, 향후 계획 수립시 종로구의 의견을 참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창신3동 관내에 낙산아파트 철거부지에 대한 종로구 토지이용계획(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철거부지는 도로, 공원, 공영주차장 시설과 함께 연립 또는 아파트를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건립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철거부지에 이전하여 적치해놓은 토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일시는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4월 어느 날 아무런 예고도 없이 덤프트럭 15,6대 분의 건축폐기물 일부가 혼합된 흙이 낙산시민아파트 7동 철거부지에 뿌려지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이 광경을 목격한 저희 통장과 주민들이 확인한 결과 토사는 동승동의 경로당을 신축 공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흙으로 잠시 며칠만 이곳에 쌓아뒀다가 되가져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2개월 여가 훨씬 지난 오늘 현재까지도 그대로 있습니다. 창신동 주민들은 사전에 아무런 양해도 없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대단히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도 아무런 예고 없이 같은 장소에 재활용품 10여 트럭

분을 임시로 적치해놓은 사실이 있었음을 감안할 때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창신3동이 쓰레기장입니까? 아니면 쓰레기 적치장입니까?

○議長 金以煥 李東奎議員께서는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李東奎議員 시간이 되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타 동에는 없는 재활용품 적치장과 목재 파쇄장 같은 혐오시설이 우리 창신3동에 있다는 것에 대해 적지 않은 주민들이 이 점을 염려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며 다른 구정질문이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議長 金以煥 李東奎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金福同議員!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福同議員 종로5·6가동 주민과 19만 종로구민 여러분께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종로구의 생산적인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金以煥 議長님과 金正大 副議長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의 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에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고 그야말로 행복이 샘솟는 아름다운 종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鄭興鎭 區廳長님과 1,400여 공무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5·6가동 출신 金福同議員입니다. 돌이켜 보면 본 의원이 새천년 21세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가슴벅찬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의 봉사자로서 3여 년 동안 매진하여 왔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이만큼이라도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신 종로구민 여러분께 마음 속으로부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문화 1번지라고 일컫는 종로의 쓰레기 수거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깨끗해야 할 종로거리가 온통 지저분한 쓰레기로 넘쳐나 쓰레기 공해가 심하여 본 의원은 그동안 구정질문 때마다 3회에 걸쳐서 이 문제를 건

의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 제차 질문을 드리오니 이번만은 확실하게 종로구민의 마음이 시원하게 믿음이 가는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고궁이며 문화재가 곳곳에 산적해 있어 명실공히 문화 1번지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차장을 문화재 담벽에 설치하여 문화재의 도시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불편감을 주고 있으며 문화재 훼손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월드컵 주최국으로서 방문객 유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됨은 물론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고궁 적화장은 해외토픽에 오를 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상차장은 총 18개 중에서 14곳은 직영이지만 4곳은 대행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종로구 청소행정은 '93년 기준으로 볼 때 세입은 10억원, 지출은 80억원이며 7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그 후 매년 쓰레기 처리의 자립도는 '94년도에 13%, '95년도에 26%, '96년도에 17%, '97년도에 14%, '98년도에 10%로 떨어졌으며 '99년부터 지금까지 14%입니다. 이와 같이 매년 쓰레기 처리를 위한 자립도가 낮아지는 이유는 대행업체에 쓰레기 처리를 맡기고 나서부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쓰레기 처리 대행업체의 횡포에 주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며 대행업체에서는 봉투를 판 이윤이 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한 술 더 떠 대행업체에 매년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이런 대행업체에 지출하는 금액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주민들은 구청에서 직영으로 쓰레기를 처리할 때가 행정서비스가 더 좋았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점수제로 대행업체를 관리 감독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대행업소 점수제란 규격봉투에 담

놓은 쓰레기와 산업용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를 얼마나 신속히 처리하는지 매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체크하도록 하여 점수에 미달된 대행업소는 다음년도 대행 참여업체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으로 제재를 가하면 오늘과 같은 업체들의 횡포는 없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봉투에 담겨져 있는 쓰레기는 물론 규격봉투의 쓰레기를 방치하고 있어 이로 인하여 도로에 적체된 쓰레기가 집하장이 되어 주위의 미관은 물론 위생적으로 많은 불편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쓰레기봉투를 대행업소마다 다르게 제작하여 종로구 관내에서 거주 이전하는 주민들로 하여금 불편을 겪을 뿐만 아니라 주민 경제에도 피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을 깨끗하고 푸르게 가꾸어 자연친화적이고 인간중심적인 도시미관을 만들겠다고 구청장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가로수는 도시 빌딩의 삭막함을 보완하는 역할은 물론 공기도 정화시키고 한여름철에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는 동시에 우리의 미관을 쾌적하게 지켜주는 등 많은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방지하여 일상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지난해에는 태풍으로 인하여 가로수가 뽑히고 부러지고 했으며, 종로5·6가동사무소 주변에 오래된 플라타너스 같은 수종의 나무는 옷자람이 심하여 뿌리가 가지의 중량을 이기지 못하여 넘어지는 일도 있었으며, 옷자람 가지를 제때에 처리하지 못하여 이화시장 주변 가로수가 도로변으로 30도 정도 기울어져 교통표지판과 교통 신호등을 가로막고 있어 질주하는 차들이 나무를 들이받는 사고가 잦은 실정임에도 옷자람 가로수를 제때 전지해 주지 않는 일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옷자람 가지 전지 때 자르는 작업에 본 의원도 동참하며 들은 애깁니다마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며, 교통사고로 인하여 고귀한 생명을 잃는 일은 물론 서울시민과 종로구민에게 불편을 겪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니다.

네번째 질문드립니다. 수준 높은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까라는 종로구는 오래된 도시로 중심에 있어 노후된 하수구가 생활하수를 수용하지 못하며 닳쳐올 장마에 턱없이 부족한 준설과 하수관로 사이로 오폐수가 흘러나가는가 하면 종로거리가 오염되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하수관 보수공사 시 연결관이 10cm, 20cm 공간이 생겨 틈새로 오수가 흘러나오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데도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섯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종로거리가 쾌적하고 아름다워야 하는데도 불법 들출간판이 무질서 그 자체입니다. 본 의원이 외국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라는 선진국과 후진국을 다녀봐도 우리처럼 간판이 난립된 곳은 보지 못했습니다. 1개 점포, 1간판으로 크기와 색상 등 기준을 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점포에 정면 또 양 측면으로 그것도 모자라 현수막을 내거는 것은 앞으로 월드컵을 앞두고 외국방문객을 맞이하기 위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고 반드시 위반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무엇입니까? 또한 광고간판으로 인한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와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종로문화의 거리를 새모습으로 단장하여 문화1번구 위상을 확보하고 선진거리 문화운동으로 시민의식을 높이겠다고 구청장께서는 하셨습니다. 종로구에는 아직까지 재래시장이 밀집되어 있어 속칭 먹자골목이 여러 군데 밀집해 있으며 이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는 먹자골목을 방문, 점검해본 결과 위생 시설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뒤떨어져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생선, 고기 등을 구워 먼지와 냄새, 배출가스 오염으로 뒤집어 쓴 음식을 손님상에 올리고 통행에 불편까지 끼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광경을 수시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2001년은 한국방문의 해로 월드컵을 대비하여 체

계적으로 단속 홍보활동이 시급하며, 위생업소의 제도 단속을 통해서 쾌적한 음식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해주실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질문드립니다. 지역개발 여건조성을 위해서 도로건설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셨습니다만 지금 종로에 우후죽순처럼 발생하는 가건축물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조립식 가건축물이 많이 발생하는 건축법상 가건축물은 신고증 하나만 있으면 고도가 8m로 단층 하나를 하여 토지주 마음대로 짓고 가건물을 허가하여 주거용이 아닌 창고용으로 활용하는데 이로 인한 지역주민의 화재위험은 물론 일조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가건축물이 발생하는 원인은 종합시장 원단창고가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을 했기 때문입니다. 가건축물은 기존 주택을 헐고 그 자리에 단층으로 허가를 득한 후 내부를 2층으로 만들어 원단창고를 임대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가건축물은 3년 기간으로 하고 기간 만료 시 안전진단 후 기간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립식 판넬로 되어 있으며 이 판넬은 철판과 철판 사이가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어 화재위험이 크며 철거 후에도 산업쓰레기 처리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규제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보행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겠다고 구청장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종로4가 중요공원 앞과 승인로터리 삼우텍스플라자 앞에서 차량 정체 및 교통시설 미비로 인한 관내 주민과 상인들이 중앙선을 불법 침범하여 유턴하는 바람에 신고수당을 노리는 주민신고가 주당 2,000건이 넘어 교통안전대책이 아쉬운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안을 말씀드리면 유턴지역을 교통안전용 탄력봉을 설치함으로써 주민 민원해소 및 크고 작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때문에 오늘 아침에 본 의원이 승인동과 종로4가를 약간 확인했습니다마는 탄력봉을 2m 간격으로 설치할

했는데 2m 간격은 조금 넓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를 검토하신 후 다시 조치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앞으로 1년 채 남지 않은 임기동안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 관행을 개선하려 노력해왔으며 나아가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며 또한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의 대변자로 민의인 본 의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본 의원 구정질문이 미력하나마 구 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구민복지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議長 金以煥 金福同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洪起瑞議員!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洪起瑞議員 명륜3가동 출신 洪起瑞議員입니다. 앞서 동료 의원들께서 인사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요즘 사회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사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자원봉사 점수제를 도입하고 나서 공공시설 어느 곳을 찾아 시간때우기식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어 마음속 깊은 봉사정신에 의하여 참여하는 봉사자들 전체가 희석될 우려가 있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줄 우려도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공공시설 환경정비, 자연보호캠페인, 길거리 환경정비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단 한 시간이라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책임감을 부여하고 또한 아울러 불우 복지시설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장애인이 살아가는 의지력을 배울 수 있는 교육과 실질적인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관내 무의탁노인들과 자매결연을 맺게 하여 주기적으로 집을 찾아 외로움도

달래드리고 가사도 돌봐주면서 가족의식을 갖게 됨으로써 무의탁노인들에게는 가족이 있다는 자부심을, 또한 학생들에게는 어른을 공경하는 공경심을 가질 수 있는 참교육이 되도록 자율봉사 가산점수를 후하게 부여함으로써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이 접목되어 앞으로 훌륭한 인재가 양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관내 학교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많은 자원봉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시면 구청장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洞1社 자매결연 추진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개 동과 1개 회사 간에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종로구 관내의 기업활성화 등 경제발전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동사무소에서는 그 회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원가에 구입하여 새마을부녀회 및 각 자생단체에 이를 판매하여 그 회사 제품을 널리 홍보하여 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회사에서는 또 관내의 젊은 인재를 발굴하여 신입사원 및 공원을 확보한다면 이 회사는 우리와 자매결연을 맺은 회사이기 때문에 소속감을 더 가지고 더욱 열심히 발전하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사업이 종로관내에 19개 동과 19개 기업체와 자매결연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종로구 관내 경제활성화에 활기가 넘치리라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도로 계획선 철회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명륜3가 1-127호부터 명륜3가 1-135구간 폭 4m, 길이 90m 소방도로 확장공사 구간에 대해 주민들의 진정에 의해 이 지역은 고지대로 도로가 확장되어도 실용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접해 있는 지역에 폭 8m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또한 개설구간 입구에 소화전도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진압에는 큰 무리가 없을 뿐더러 좁은 도로를 확장해서 이득보다 오히려 주민들에게 정신적, 물리적 피해가 막심할 걸로 판단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경제적 여력이 떨어지는 주민들에게 집 한 칸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구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판단됩니다. 도로가

생길 경우에는 지금도 협소한 집안 환경이 더욱더 어려워져서 집으로서의 가치나 기능이 상실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현재 본 도로폭은 3m로 소형차량 소통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굳이 넓히기 위해 구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예산으로 종로구 관내 시급한 지역에 편중하도록 하시고 본 도로확장 고시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보고 금년 4월에 주민대표 남가희 외 94명이 지난번 구청장 앞으로 접수시킨 진정서 문서번호 토.목 58700-1698 시행일자 2001년 5월 17일 회시문을 보면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 도면을 확인한 결과 도시계획선이 없으니 이해해달라고 회신을 주셨는데 주민들은 본 의원을 찾아와서 도시계획선도 없는데 웬 도로개설을 할 수 있느냐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 예산편성 책자 446페이지에 보면 도로개설사업비 2억원이 편성되어 본 의원은 2억원 전액의 삭감을 요청, 삭감했는데 도로개설 계획선도 없이 예산편성을 해서 바로 도로개설을 할 수 있는지 구청장께서 답변을 주시고 만약 도로개설 계획선이 있었다면 제대로 확인도 없이 집단민원인들의 답변 회시를 불성실하게 회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2001년도 예산서와 같이 도로계획선이 확실하다면 본 도로개설 계획선은 마땅히 철회하여 민원인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는데 구청 해당부서에서는 속히 철회하여 민원인들로부터 신뢰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물탱크 청소는 제대로 되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요즘 상수도물 관리에 비상 사태가 발생되고 있는 보도가 각 언론사를 통해 보도되고 있어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특히 명륜3가동 고지대인 와룡동 고지대를 위시하여 종로구 관내 고지대는 물탱크가 설치되어 있어 그 물탱크에 물을 저장하여 각 가정에 보급됩니다. 그러나 물탱크 청소가 1년에 몇 회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청소를 실시할 때는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있는지 주민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 언론사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돗물을 그대로 마신다가 0.2%, 끓여 마신다 7.2%, 정수기로 걸러 마신다 11.6%, 생수를 사서 마신다 7%, 약수와 지하수를 마신다 14%로 나와있는 실정입니다. 물탱크 청소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주민들의 불신이 더 커지리라고 봅니다. 만약 수도사업소 소관이기 때문에 감독이 제대로 미치지 않다면 수도사업소와 긴밀한 협조체제로 고지대 주민들이 마음놓고 수돗물을 마시게 청소를 주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장치를 마련하실 대안을 구청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반장 및 기초생활자 보상품 개선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추서명절과 연말에 통·반장 및 저소득자에게 지급되는 보상품은 농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야기되어 개선을 요구합니다. 농협상품권 2만 5,000원 내지 3만 원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라는 종로구 관내는 농협구판장이 사직동에 위치하고 있어 생활보호대상자들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고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사직동과 원거리에 있는 분들은 그냥 방치하고 활용을 못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 구청에서는 통·반장 및 저소득 생활보상품을 일괄 구매하면 대량의 현금구매가 되어 저렴하게 질 좋은 품목을 선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지급되고 있는 상품권처럼 장롱속에서 사장되고 있는 사례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구민체육대회시 운동복 구입도 각 동별로 개별 구매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구청에서 업체를 선정해 주시면 동별로 개별 구매시 150에서 200벌 정도 되므로 전체를 합하면 3천에서 4천벌이 되어 저렴하게 좋은 운동복을 구입할 수 있으며 동별 식별표시는 업체에서 색깔별로 구분한다면 큰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앞으로 개선하실 대안이 있으시면 구청장께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버스정류장 조정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평소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고지대에 사는 저소득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요

증 서울시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노선의 정류장 3곳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정류장은 폐쇄하도록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 시책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명륜 마을버스는 와룡동 꼭대기를 출발하여 성대입구를 거쳐 원남동로터리에서 유턴하여 혜화동 4호선을 경유하여 종로5가 1호선을 종점으로 하여 종로4가를 거쳐 다시 회차하도록 되어 있어 저소득 주민들의 긴요한 교통수단으로 활용되는, 많은 주민들로부터 가뭇에 단비를 만난 듯 아주 호응도가 높았는데 문화거리조성으로 성균관대학교 입구에서 명륜사거리까지 일방통행으로 마을버스가 통행을 못하게 되어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어 차선책으로 구민생활관쪽으로 노선방향을 전환하였으나 63-1 수문여객과 노선이 중복되어 정류소를 3곳으로 제한하게 된다면 주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63-1 노선과 겹치지 않는 종로4가, 원남동 여전도회관 앞까지 폐쇄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고, 명륜 마을버스 노선을 현재 정류장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 배려해 주시고 만약 서울시조례에 의해 어렵다면 우리 구 조례라도 개정하여 꼭 실현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미만의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경감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종로구는 조선조 500년의 도성이 자리잡았던 곳으로 그 특성상 구 시가지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어 한옥지역이 상당히 있는가 하면 택지규모가 소규모이며 필지 획정도 불규칙적으로 구획된 것이 대다수입니다. 우리 구 전체 주택수 4만 8,940호의 69%인 3만 2,279호가 단독주택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지면적도 평창동지역을 제외하면 1동당 32평 정도의 규모로 주거문화가 크게 열악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주택에 사는 가구는 현대적 주거방식에 따라 자연히 보일러 설치나 입식부엌 개조 등으로 3평 이내의 증축이 부득이한 실정이나 대지규모의 영세성 등으로 적법한 증축이 곤란한 지형에 처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실정으로 종로구 무허가건물 발생현황은 '99년 기준으로 할

때 무허가건물 287건 중 44%가 3평 이내의 소규모 증축으로 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무허가건물에 대해 현행 건축법은 위반면적의 시가표준액 50%를 곱한 금액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어 서민 편에서는 이행강제금이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다행히 시조례에서는 85㎡ 주거용인 경우에는 50%를 경감해주도록 하고 있으나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 구 같은 현실에서는 무리한 행정규제로 비쳐지는 것은 여전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3평미만 생계형 무허가증축에 대하여는 현행 경감폭을 대폭 확대하여 이행강제금이 행정벌로서 상징성만 유지하는 선에서 관련 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서 경감을 주장하고 있는 현행 서울시건축조례 43조의 개정을 건의하오니 구청장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청소행정 개선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질문했습니다마는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재차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7일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과 함께 구청 주관으로 상차장 등 쓰레기처리시설 전반에 관한 시찰을 한 바 있습니다. 먼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사례와 함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시찰을 하면서 직접 보고 느낀 바에 의하면 구기동과 창신동에 있는 재활용선별장과 파쇄장의 경우 담장, 바닥 그리고 쓰레기더미 같이 쌓여있는 재활용품을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가릴 수 있는 지붕 등 주변환경을 고려한 시설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동별로 설치되어 있는 상차장의 경우에도 사후관리를 위해 애쓴 흔적은 볼 수 있었으나 역시 가림판이나 세척시설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한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있었어도 미관이나 수도, 안전문제 등이 고려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외부 시설이 사람이 이용하는 곳이

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열악했으며 송정동 차고지에 가보니 청소차량이 있었어도 내구년한이 6년을 경과된 차량이 많아 잦은 고장 등으로 가동률이 90% 정도에 불과하며 특히 10년이 넘는 차량이 10여 대나 되고 있으니 항상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한 발 앞서 민원을 해결하는 자세로 예방 위주보다 적극적인 청소행정을 추진해주실 것과 과감한 시설투자로 청소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우리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반적인 청소시설 확충 및 개선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민간대행지역의 무단투기 쓰레기 사전예방대책도 취약지역인 명륜3가 고지대 및 창신동, 송인동 고지대 지역은 우리 구청 직영으로 전환하고 저지대 지역을 민원대행으로 교체하면 획기적인 개선책이 되리라고 보며 이에 발생한 쓰레기의 수거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다시 한 번 집행부 청소행정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의지를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지금까지 질문에 대해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주시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언론사 및 방청객, 명륜3가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以煥 洪起瑞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鄭泰淳議員!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泰淳議員 안녕하십니까? 鄭泰淳議員입니다. 다른 동료의원님들께서 서두에 인사를 하셨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네 가지만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대민 업무가 공급자 중심에서 수혜자 중심의 주민을 위한 진정한 서비스 경쟁시대가 도래되었습니다. 수혜자인 주민을 위한 새로운 질높은 서비스 방안이 있으신지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지역, 개인 이기주의를 논하기 이전에 장례시설, 쓰레기 상차장, 적환장 등 기피시설에 대한 획기적인 대안이 없을 때는 그 지역 주변환경과 주민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그에 상응하는 여가조성을 제공하여 전화위복이 되어 혜택을 받

고, 그럼으로 인해 누구나 반대급부를 위해 남이 외면하고 기피하는 것을 서로 유지하려고 경쟁하는 정치를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청장님의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과 이해관계에 있는 모든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민 의견청취를 통해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구청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종로구청사에 대한 신축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종로구청사는 대지 8,673㎡로 약 2,624평에 건물은 '22년도에 신축된 79년된 건물입니다. 이 건물로 보면 우리 구청이나 의회에서 사무공간을 활용하는 데도 사무공간이 부족함은 물론 노후시설로서 첫째, '45년도에 대한민국 차량대수는 7,326대였습니다. 2000년 5월 차량대수를 보면 1,150만 1,523대이고 2001년 5월은 1,240만 4,882대로 기하급수적으로 주차수가 늘고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청은 '79년도에 불과 차량도 몇 대 안되고 인구도 얼마 안되는 그런 환경으로 청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청은 서비스 기관입니다. 구청업무는 민원 때문에 오시는 민원인들과 당장 여기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관계공무원들도 이제는 사치성이 아닌 생활필수품이 되어버린 자동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종로구가 보유한 차량만 해도 당장 종로구청사 내에 주차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종로구청에 인접해있는 모든 도로는 종로구청에서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터 민원인들은 종로구청을 선호합니다. 어렵게 차를 가지고 종로구청에 들어오려면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주위에 인접되어 있는 곳에 주차를 하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종로구청 차는 불법스티커를 발부하지 않고 민원인들의 차는 불법스티커를 발부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한 민원은 결과적으로 기관을 불신하는 주민들의 민원 대상이 되고 또 기관은 출선수범해서 시행하지 않고 국민과 시민에게만 불편부당하게 손해를 감수하게 하는 관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로구청은 79년된 건물로서 우리나라는 이웃에 인접되어 있는 기관이라든가 회사의 본사 사옥들을 보면 H빔으로 해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로구에는 그러한 시설의 사무공간도 부족하고 여건도 안 좋은 상태에서 대수선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아침에 통계청에 대한민국의 지진발생 빈도와 크게 난 사례를 통계청에 자료를 요구해봤습니다. 우리나라에 5.2리히터(RICHTER)의 지진이 발생한 사례가 3번 있었습니다. '79년 9월 16일 속리산에서 5.2도의 지진이 발생했고, 10월 7일 홍성에서 5도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부상 2명에 건물파손은 118동, 균열 1,000동, 성곽이 90m나 붕괴되고 재산피해는 2억이 발생하고 보수비가 4억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 환태평양 경제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진에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이웃에 있는 건물들이 안전 때문에 H빔을 넣어서 신축하고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사무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도 여기에 있는 본 의원이 누누이 신청사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장 3개월 후면 소방공무원, 관계공무원 모두가 주차스티커를 발부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IMF보다 더 살기가 어렵다고 이구동성으로 원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입각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종로구민과 이웃에 있는 이웃 주민들에게 이러한 실정에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서 주민들의 주름을 펴주실 것인지 이에 대한 區廳長님의 대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以煥 鄭泰淳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丁炳煥議員!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丁炳煥議員 존경하는 金以煥 議長님과 金正大 副議長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이 샘솟는 아름다운 종로 만들기에 불철주야 헌신 봉사하시는 鄭興鎭 區廳長님과 盧張鐸 副區廳長님을 비롯한 1,400여 종로구청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언론

사 관계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무악동 출신 丁炳煥議員입니다. 새천년 21세기를 맞이하여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의회상을 구현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전반기를 결산하는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뜻깊은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공직자 재산변동신고 공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의하여 재산변동신고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제10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자의 재산변동 내용을 2001년 2월 28일자 구보 제471호로 유인물로 제작하여 공개했습니다. 이와 같이 무보수로 봉사하는 종로구 의원의 재산신고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개인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또한 개인정보 누설금지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의원간 위화감을 조성케 하는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꼭 구보에 공개할 이유가 있는지 區廳長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종로거리 노점상 정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로환경정비는 중점 정비지역으로 선정한 종로, 청계천로, 대학로를 가로정비기동반 2개 조 30여 명이 매일 2회 이상 순찰, 정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취약지구는 상주근무조를 5~6명씩 편성하여 노점 및 노상적치물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야간에는 불법 심야 포장마차 정비를 위해 1개 조 10명이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 5월 24일 저녁 9시 KBS뉴스 보도에 의하면 종로거리가 기업형 노점상이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정치, 경제, 문화, 상업, 행정의 중심지로서 본보기가 되고 아름다워야 할 종로거리가 텐트를 치고 마차 먹자거리처럼, 장터처럼 되어 250만여 명의 유동인구가 생활하는 종로거리가 보행에 불편을 줄 뿐 아니라 위생에 있어서도 국민건강을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업형 포장마차를 하루속히 정비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으며, 종로거리에 쓰레기통이 설치되지

않아 다중집합장소인 서울에서도 중심지인 종로에 쓰레기 배출이 날로 가중되어 온갖 쓰레기로 거리를 뒤덮고 있는 현실입니다. 2002년 월드컵 경기에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거리를 정비하는 차원에서라도 서울시 전 구청이 정비하고 있는 광고물정비와 같이 거리 포장마차도 일괄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뒷골목 주차단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불법 주·정차단속은 교통난을 해소하고 이면도로의 기능을 확보하며 재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시민들로부터 하여금 교통소통 제고와 준법질서를 확립하게 하는데 있습니다. 우리 구 주·정차 단속인원은 23개 조 56명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도로의 기능을 마비시켜 지난 2001년 3월 4일 새벽 3시에 홍제동 화재사고로 귀중한 소방관 6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는 우리라고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사고 직후 주간에는 단속을 잘하여 주차를 하지 않으나 야간에는 무단주차로 인하여 승용차조차도 진입이 불가능하게 하는데 소방도로 확보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동별 직원들의 성비 불균형으로 인한 불편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별로 남자와 여자 직원의 구성은 일정 비율을 정하여 형평에 맞게, 균등하게 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준없이 배치하여 남녀 구성비율이 비슷하게 되어 있는 곳이 삼청동을 비롯하여 무악동과 혜화동이며, 명륜3가동 같은 곳은 여직원이 오히려 많은 실정입니다. 이렇게 기준없이 무분별하게 각동에 근무하는 직원을 배치함으로써 각종 비상대책 시 긴급한 일을 해결할 경우 어려움이 많고 비상대기 야간숙직 근무 시에도 불편을 겪게 되어 공무원의 사기저하를 부추기고 있으며 따라서 양질의 대주민 서비스 봉사행정 구현에 막대한 지장을 줄뿐만 아니라 관리자인 동장과 계장의 권한도 대폭 축소되어 일상불란한 지휘통솔에 문제점이 발

생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성비율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 것이며 이를 해결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구세 체납 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9년부터 2000년까지 구세 체납액을 보면 재산세 5,192건에 5억 3,342만 6,240원, 종토세 5,761건에 26억 2,684만 1,540원, 면허세 2만 9,065건에 7억 3,233만 6,450원, 사업소득세 145건에 4,944만 7,380원 총 4만 164건에 39억 4,205만 1,610원이 체납되었으며 2000년도 체납액은 재산세 3,958건에 6억 1,731만 8,895원, 종토세 5,595건에 30억 2,233만 8,000원, 사업소득세 117건에 3,876만 7,300원 총 3만 6,333건에 43억 8,319만 8,734원으로 '99년부터 2000년까지 체납은 총 7만 6,496건에 83억 2,525만 3,430원이 체납되었습니다. 또한 교통관련 위반과태료 체납 건이 '99년도에 8만 7,270건에 38억 2,601만원, 2000년도 체납 건이 11만 9,961건에 52억 3,521만원으로 총 20만 7,231건에 90억 6,122만원이 체납되어 구 재정 수입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체납액 징수대책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 미력하나마 구정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以煥 丁炳煥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憲九議員!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李憲九議員 · 존경하는 19만 종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효자동 출신 구의원 李憲九입니다. 앞서 丁炳煥議員께서 인사말씀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본 의원도 동감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할 사항은 2000년 12월 정기회의 때의 질문사항입니다. 그때 미진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문드리고 또 촉구하는 의미도 겸하오니 우리 구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인왕산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철조망과 가건물 내지 건축물을

철거하여 주도록 부락을 드렸습니다. 청장님께서는 군사령관과 협의하여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겠으며 이 지역에 32억의 예산이 책정돼서 시설물을 새로이 단장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답변이 아직도 유효하신지요? 아직도 유효하다면 가시적인 성과는 언제쯤 나올 건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교동 2번지 일대 소방도로 개설 건은 새로 소방도로 개설시 예산관계로 곤란하지만 그러나 적극 검토해보신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11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吳鍾錫 建設交通局長님께 재차 질문시 吳局長께서는 도시설계구역 지정 예산을 확보해주시면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이 지역에 소방도로를 개설하면 우선 주민들의 편의는 물론 소방 사고지대에서 해방되고 주차공간이 생김은 말할 것도 없고 금년같이 가뭄이 심할 때 도로를 개설했으면 주민들의 통행이 빈번해서 수목보호에 도움이 되리란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는 수십억원이나 투입해서 공들여 심은 수목이 가뭄에 많이 타죽었습니다. 수목원을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 의뢰해서 수목원 담임제를 실시하면 지금쯤 훌륭한 수목원으로 성장했을 텐데 정말 안타깝고 이것도 이 지역에 진입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데서 기인됩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내년 예산에 도시계획구역 설계비를 책정하여 소방도로를 개설하도록 조치하여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다시 한 번 질문드립니다.

셋째, 경북궁 서편 보도블록을 동편과 같이 교체하여 주신다고 하셨는데 상반기가 지나도록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지역을 산책하다 보니 공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7월 3일 종로경찰서장께서 방법공청회를 우리 효자동사무실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 주민께서 경북궁 서쪽 영추문으로 경북궁을 들어가도록 개방하여 주십사 청원하였는데 이것은 아마 청장님께서 해결하여 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효자동 주민들이나 청운동

주민들께서는 여간 불편하지 않습니다.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 문제는 존경하는 金福同議員님의 신랄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역시 작년 12월달에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와 플래카드 정비는 많은 실적을 올리시는 것 같습니다만 아직도 요원합니다. 참으로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이 없고는 해결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적극 정비중이고 각 구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더 분발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종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은 멀지 않았습니다. 바로 코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다섯째, 옥인동 불국사를 끼고 수목원으로 가는 원편의 블록담은 아주 시설이 낡고 붕괴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인왕산 경관을 가로막고 마치 교도소 담장같은 그런 흉물입니다. 지난번 질문 때 2001년 예산사업으로 철거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아카시아나무는 뿌리가 부실해서 위로만 성장되어 있습니다. 태풍이 불거나 할 때는 그 아카시아나무가 부러졌을 때 그 담장을 친다고 봤을 때는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언제쯤 철거가 될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옥인동 47번지 일대 재개발은 많은 어려움에도 주민들께서 적극 호응하여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문제점은 층고를 5층까지 허가해달라는 것인데 뜻밖에도 6월 16일자 문서번호 도계 58531-1218 수신자 옥인동 41번지 옥인제일주택 재개발추진위원장 이병문 앞으로 온 내용이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공문이 왔습니다. 내용인즉 이병문님께서 2001년 4월 16일 제출한 옥인동 47번지 주택재개발지역 지정 신청에 대하여 군부대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이라고 하여 육군 제1호 96부대 의견을 다음과 같이 보내왔습니다. 「옥인동 지역은 군사시설보호법 제12조에 규정된 내용에 의거 대공방어협조구역으로서 3층 이하 행정관서 위탁지역으로 통제하고 있는 지역이며 핵심시설로부터 500m 근접한 상지역에 5층 이

상 아파트를 대규모로 신축할 경우 대통령훈령 28호에 명시된 특정정비지구 작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3층 이하로 고도제한이 불가피함, 이렇게 왔습니다. 관련근거는 군사시설보호법 및 같은법시행령 군사시설보호구역관리규정 국방부령 제606호로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이 한 장의 공문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주셔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주민들께서 근 4년 동안 오매불망 이 천하명당 지역을 재개발하여 살기 좋고 쾌적한 지역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고도가 4층으로 되어 있어 이것을 5층으로 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주민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여 왔는데 난데없이 군 협의 지역이라고 하여 3층 이하로 고도제한이 불가피하다는 날벼락이 웬 말입니까? 그렇다면 이 지역 재개발 지구지정을 받으려고 하였을 때 미리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녕 이 지역이 아파트 신축시 3층 이하밖에 건축할 수 없는지요?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주민들께서는 분노가 충천하여 청와대 가서라도 데모하여 5층 건물을 관철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공문이 군부대에서 나온 공문이고 이것은 종로구청에서 보내온 공문입니다. 그랬다면 전에도 이 지역 근처에 건물 신축시 군 협의를 거쳤는지, 그렇다면 이 지역 주위의 많은 건물이 5층 이내로 신축되었음을 어떻게 설명하시겠는지, 종로구는 이 지역 외에도 명륜동, 가회동, 삼청동, 부암동, 평창동 등이 모두 군 협의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기존의 모든 신축건물들은 위법건물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인동 47번지 일대 재개발 추진은 지금 4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처음 재개발문제가 나왔을 때 왜 도시계획과에서는 이 지역이 군사보호구역으로 3층 이하밖에 신축할 수 없다고 미리 말씀하셨다면 주민들이 오랫동안 에너지 소모를 하지 않았을 텐데 어찌하여 그 당시 河局長께서는 승인하였는지 답변을 요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누하동 93번지에서 통인동 76-3까지의 도로개설 건입니다. 이 지역 도로개설 예산

은 작년 10월경 명시이월된 10억원 예산이 투입되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서번호 58700-2173 시행일자 6월 19일로 된 도시계획사업 도로입니다. 실시계획 변경인가고시에 의하면 변경 전에는 누하동 93에서 통인동 76-3까지인데 변경 후에는 누하동 93에서 누하동 210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고시가 변경된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 계속사업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 지역 해당 주민 중에는 미리 이사할 곳을 계약하고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정말 원망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물질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보상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유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金以煥 議長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鄭興鎭 區廳長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저의 따뜻한 마음을 보냅니다. 하절기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이 뜻대로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以煥 李憲九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朴鍾植議員!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鍾植議員 朴鍾植議員입니다. 우선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종로구청이나 관계공무원들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 건축행정 자체에 모순점이 있어서 그 모순점으로 인해서 많은 구민들이 재산상에 큰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시정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되어서 제안을 하고 시정을 촉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을 제가 대강 그려 왔습니다마는, 이것이 동송동입니다. 이 안 부락이 70세대가 있는데 이 길이 4m정도 됩니다. 소방도로 적용으로 또 진입로 관계가 6m이상이 되어야 6층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3층 정도밖에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기가 스카이빌이라고 해서 약 20세대, 땅으로 506평입니다. 거기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2층밖에 되지 않는 빌라를 좋게 만들어 보고 싶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맹점이 있습니다.

이 맹점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 진입로에 들어있는 주택을 건축 시에 그 허가를 6m 도로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한다면 4m밖에 도로가 안된다고 하면 아예 2m정도를 들어서 허가를 내줬다면 안의 70여 세대가 방대한 땅이 건축법에 허용되는 6층까지도 못 짓게끔 그렇게 제약을 받아서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상태는 생기지 않았을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담당 국장님하고 얘기를 해본즉 건축법에 관계공무원들은 건축허가 시에 현장에 나가지 않도록 법률이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현장에 나가서 그 안동네 상황도 검토해보고 그 지역실정도 검토해 보고 현실에 맞는 건축행정으로 허가를 해주었다면 안동네에 이런 많은 맹지가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제가 상임위원회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 실례가 연건동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약 1m 정도 되는 사도가 35m가 있었는데 그 35m 도로이기 때문에 막힌 길은 6m 소방도로가 확보되어야 되고 이 소방도로는 4m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안에 7채가 살고 있는데 이 입구에 있는 건축물들을 허가할 때 6m 소방도로를 적용하지 않고 허가를 해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건축을 새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6m를 적용해서 2.5m씩 안으로 들어서 설계를 해와야 건축허가를 해줄 수 있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사는 사람 한 명이 건축법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 주동이 되어 가지고 구청에 와서 많은 항의를 하고 투쟁을 한 결과 결국 이 35m도로는 소방도로를 무시하고 앞의 건물을 허가해준 것처럼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35m 소방도로가 확보되어야 될 지역에 옛날처럼 1m도로를 확보 유지해서 지금 5층 이런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지역여건을 조사하고 현실적인 건설행정을 했다면 이런 소방도로가 없어진 일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또 안동네 사는 많은 지역주민들이 맹지로 인해서, 건축제한으로 인해서 주어진 권리를 못 찾고 재산상의 피해를 보는 이런 상황은 도래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 해서 이것은 비단 우리 종로구청 문제가 아

니고 서울시 전체 문제이고 우리나라 전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어쨌든 당국에서 현실적으로 조사하고 검토해서 이런 문제를 시정해서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이렇게 강력히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제안하고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저는 이 한 가지만 제안 드리려고 했는데 자료를 보니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꼭 챙겼으리라고 했던 것이 빠졌기 때문에 차제에 질문을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종로구의회사무국이 서울시 기초단체 의회사무국 중에서 가장 협소하고 빈약합니다. 사실 민원관계로 찾아온 주민들을 접견할만한 장소도 없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의원님들이 의정연구를 할 만한 장소도 없습니다. 물론 저는 지나치게 사치스럽게 꾸며지고 방대한 시설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최소한 지장 받지 않을 정도로는 개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우리 의회사무국의 접견 장소랄지 조금 개선되어야 할 점을 개선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鄭興鎮 區廳長님께서 제1대 3년, 제2대 3년, 6년 동안 구청장으로 봉사하시면서 종로를 위해 犬馬之勞를 다해오셨습니다. 임기를 1년 남긴 이 시점에서 여러 가지 감회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임기 1년을 앞두고 그 동안 계획된 사업들을 착실히 마무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구민 모두와 더불어 촉구하는 바입니다. 구청장으로서 재직한 6년 동안 업적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하여 청장의 소신을 의회에서 1년 남은 시점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의미가 크다고 사료됩니다. 구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以煥 朴鍾植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끝으로 吳錦南議員!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錦南委員 존경하고 친애하는 종로구민 여

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종로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며 의정활동을 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여주시는 존경하는 鄭興鎭 區廳長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이 자리에 참석하여주시는 지역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직동 출신의원 吳錦南입니다. 먼저 19만 종로구민의 민의(民意)의 전담인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구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여러분의 하시는 일마다 행운이 충만하시고,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같이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鄭興鎭 구청장님께서서는 구청장으로 재임하신 지 벌써 6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종로는 많은 발전을 가져왔고 또 변화가고 있으며, 살기좋은 종로 건설과 행복이 샘솟는 아름다운 종로, 환경친화적인 구로 나날이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혼연일치된 종로구는 생산적인 지방자치단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각종 복지시설을 확보하여 주민들에게 희망이 샘솟는 문화·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가까운 곳에서 삶의 보람과 즐거움을 갖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서부지역 주민들에게는 그러한 혜택이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서부지역 8만여 명의 주민은 청장님이 2001년도 예산편성 시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대로 서부지역 문화체육센터가 건립되면 이곳 서부지역 주민들은 각자의 취미를 살려 문화의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금년도에 토지매입비로 3억 9,000만원이 이미 편성이 되어 있으며, 사직동 산 1-48번지 약 1,160여 평에 건립될 예정인 서부문화체육센터의 건립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직동 262번지 일대 도시가스 보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직동 262번지 일대의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20여 년 만에 금년도에 모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서민들은 어려운 생활 속

에서도 개발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안고 개발을 시작하여 연립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건물들이 건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어려운 생활여건에도 변화를 주어 연탄에서 LPG로 연료를 전환하기도 하며 또 도시가스의 사용으로 복지 혜택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3년 동안은 도로굴착 복구공사가 통제되므로 사직동 208번지에서 시작으로 횡단은 법이나 규정상으로는 불가능해지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는데 바 행촌동, 무악동, 교육위원회관 등 가장 편리한 곳을 선택하여 2개 통 274세대가 편안히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도시가스 보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청장님의 따뜻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홍제동 화재참사 때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던 골목길이나 재래시장 같은 곳에서의 불법 주차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관, 공원 관리원, 노점상 단속원, 동사무소 직원 등을 주차단속요원으로 편입시켜 대대적인 단속의 전개방향에 대해 구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의 계몽기간이라고 하지만 그 후 주택이 이면도로 등에서 벌어진 주민들간의 심각한 주차전쟁과 함께 주민불만이 고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상당기간을 두고 홍보에 역점을 두어야 하며, 주차장을 확보하는 한편 거주자우선 주차제 시 자기집대문 앞, 장애인, 구획선과의 거리 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집 주차장 건설시 대폭적인 저금리의 융자지원과 함께 무리한 단속으로 인한 주민들과의 충돌을 최대한 피할 수 있도록 단속요원의 소양교육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취약지역과 일반지역, 주택 뒷골목 등을 구분해서 대응하는 방법 등 주민 불만을 최소화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조사에 대한 용역도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로구 차량 등록대수는 5만 1,405대이고 공공기관 차량 등록 대수를 뺀다 해도 승용차만 약 3만대에 달하고 주차구획선은 현재 거주자가 2,055면, 공영주차장이 588면 총

2,640면으로서 주차장 부지가 너무나 열악한 현실입니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보면 기존 도로에서 구획선을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전 지역의 이면도로를 일방통행화 하면서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선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로동사무소가 존치하였을 때 주민들의 민원건의 사항도 있었다고 하나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주동 16번지와 17번지 사이 즉 44호에서 3호로 같이 연결이 되겠습니다. 골목길에서 계룡여관 쪽으로 연결되는 약 50m 정도 되는 도로표면이 불규칙하여 물받이 하나 없이 조금만 눈비가 내려도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골목길입니다. 이번 장마에 본 의원이 여러 차례 다녀왔습니다마는 역시 주민들의 이야기가 맞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배낭여행을 하는 외국인이 투숙하는 곳으로 주위 환경이 좋지 않아 외국인에게 나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곳은 물받이 보도정비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도림동 현대빌딩 뒷길 지하도 입구에서 세종문화회관까지 도로표면 아스콘 덧씌우기를 함께 하여 서울의 명소 세종문화회관의 뒷골목길도 명소의 길이 되도록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몇 가지 질문이 주민의 생활복지에 도움이 되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루한 장마철 무더운 하절기에 종로구의 1,300여 가족과 19만 우리 구민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 의원 모두가 하시는 일마다 날로 번창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金以煥 吳錦南議員! 수고하셨습니다.

議員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방청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주민과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질문과 경청을 위해 모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괄 질문을 여기서 마치고 질문에 대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05分 會議中止)

(14時35分 繼續開議)

○議長 金以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鄭興鎭 區廳長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鄭興鎭 區廳長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區廳長 鄭興鎭 존경하옵는 金以煥 議長님! 金正大 副議長님! 그리고 議員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또 아름다운 종로 건설을 위해서 힘차게 성원해 주시고 이끌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2일부터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의에 애쓰신 의원님들의 노고를 또한 표합니다. 민선 2기 종로구정이 존경하옵는 의원님들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종로 건설을 캐치프레이즈로 삼고 출범한 지 어언 3년이 지났습니다.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어려운 재정난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희망의 21세기를 맞아 서울의 중심지로 도심 기능을 회복하고 살기 좋은 종로를 만들기 위해 저희 1,400여 공무원들은 온 정성을 다해서 매진해왔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구민의 숙원이었던 구민회관이 문을 열고 가회동 동사무소에서 감사원 간 도로 개설공사가 10여 년 만에 마무리되어 아름다운 소나무가 그 위용을 자랑하는 훌륭한 도로가 되었습니다. 종로의 대표적인 불량주택지였던 무악동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눈부신 성장의 성장을 거듭해왔다고 생각하고 최근에 곧 사직동에 '경희궁의 아침'이라는 그런 주상복합시설이 들어섬에 벌써 98% 분양률을 차지하고, 또 흥인지문에 롯데 캐슬의 '천지인'의 주상복합건물이 모델 하우스를 개방하면서 벌써 78%의 분양률을 보이는 등 이제 의원님들의 더함 없는 열성과 도우심에 힘입어서 돌아오는 종로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보여지는 당찬 면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참으로 기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구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주민들의 이해와 갈등을 특히 지역의 대표로서 일하시는 의원님들이 잘 조정도 해주시고 구정을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그 밑바탕의 덕분이라고 사료되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정말 주옥같은 여덟 분의 의원님의 우리 구의 중요한 현안 문제와 주민들의 관심있는 사항에 대해서 42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질문해주신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미진한 점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제가 평소 알고 있는 내용과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성심성의껏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현안 중의 하나인 청소문제에 대해서 李東奎 市民行政委員長님, 金福同 財務建設委員長님, 洪起瑞 運營委員長님, 丁炳煥 財務建設委員長님, 鄭泰淳 運營委員會 幹事님께서 거의 비슷한 공통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대별해 보면 대행업체 이관에 따른 쓰레기 무단투기 수거대책 그리고 청소행정 시설 및 장비 확충 등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개선대책 등을 질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청소행정에 대해서 李東奎 市民行政委員長님, 金福同 財務建設委員長님, 洪起瑞 運營委員長님, 丁炳煥 議員님, 鄭泰淳 議員님께서 좋은 의견과 건의를 해주셨습니다. 청소행정 문제는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또한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중복된 부분을 일괄 답변드리는 것은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대행업체 이관에 따른 대책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를 대행업체에 이관하느냐 직영으로 하느냐의 문제는 구청장이 선택할 문제는 안된다고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IMF 이후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98년도에 371명이었던 환경미화원이 243명으로 128명이 감축되어 부득이 일부 지역을 청소업무를 대행업체에 이관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정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거기에다 예산 감축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인력 감축으로 절감된 예산은

약 43억원이 됩니다. 2001년 7월 확대 시행 계획인 봉투 판매수익은 연간 약 6억원을 계산하면 37억원의 실질적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연간 6억원의 봉투 판매수익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행업체에서는 수익이 되지 않는 무단투기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무단투기 쓰레기를 임시 모아둘 장소도 없고 인력 또한 부족해서 신속한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그동안 의원님들도 많은 질책을 받아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송구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는 무단투기 쓰레기가 신속하게 수거될 수 있도록 직영 인력으로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대행업체에서 보충적으로 수거하도록 하고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수거비용을 대행업체에 지급하는 개선대책을 곧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종로 거리도 깨끗해질 수 있고 무단투기 쓰레기를 전담하던 직영 기동인력은 가전제품 등 대형 생활폐기물의 수거 인력으로 전담 활용이 가능해서 배출신고 후 24시간 이내에 처리할 수 있어서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 문제와 대형 생활폐기물 수거 지연 등에 대한 민원이 상당수 해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행업체의 인력과 장비 그리고 수집공간 등을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어서 매우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비로 대행업체에 지급하는 비용은 연간 약 1억원에서 2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감시용 무인 카메라 확대 설치와 강력한 단속을 병행하면 이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두번째로 쓰레기 처리시설과 장비 개선 문제는 그동안 우리 구에도 꾸준히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해왔으나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상차장이라든가 환경미화원 휴게실, 재활용품 집하장, 대형 생활폐기물 파쇄장, 차고지 등 모든 시설을 주변 환경을 고려해 내·외부 시설을 대폭 정비하거나 개선하고 노후 차량 등 많은 청소행정 환경 개선을 개선하고 작업 능률을

향상시켜 행정서비스 질을 크게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쉽지는 않겠지만 집단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차장과 고궁 주변 상차장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대형 상차장 건립을 시와 협의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신 대행지역의 고지대와 저지대의 배치 문제 또 대행 지역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문제, 대행업체에 대해 주민 점수제도를 실시하는 문제, 쓰레기봉투의 일률적인 제작 문제,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정착시켜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문제, 정화조 청소에 따른 부당요금 징수 문제 등도 점차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종로거리의 휴지통 설치는 월드컵을 대비한 서울시 계획에 의해 시비로 종로 주요 지점에 60여 개를 설치할 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李東奎 市民行政委員長께서 질문하신 용역 시행에 따른 재정 향상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력 감축으로 인해 절감된 예산은 약 43억원인데 비해 대행업체 봉투 판매수익은 6억원에 그쳐서 용역 시행 이후 약 37억원의 재정이 향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金福同 財務建設委員長께서 질문하신 청소행정의 재정자립도는 금년 예산을 중심으로 약 12% 정도이나 시설 투자비 증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가변적인 수치일 것입니다. 자립도가 낮은 이유가 대행업체에 쓰레기 처리를 맡겼기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는 애깁니다.

다음으로 李東奎 市民行政委員長님 질문인 폐냉장고 해체 시 프레온가스 발생 문제 그리고 대형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 수거체계 변경 사유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수거하는 폐냉장고는 약 200대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배출 시에 냉매라고 불리는 프레온가스가 부착되어 있는 냉장고는 약 80대 정도 되고 나머지는 냉매의 영향이 없는 그런 냉장고로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李東奎委員長께서 연구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하신 부분이 많이 보이는데 송파구의 사례까지 그렇게 공부를 하셨다는 데는 감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

다. 그런데 최근 우리가 송파구에 그것을 알아봤더니 전문수거업체에서 위탁처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경제성이 없어서 지금 중단된 상태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형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변경한 것은 수익성이 없어서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지연하는 등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생활쓰레기의 신속한 수거를 위해 변경하였으며, 수거 횟수는 당초부터 주2회로 운영해온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시 단속 위주보다는 융통성있게 단속해야 되는데 마치 게릴라 식으로 단속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시고, 창신3동의 10동, 15동, 16동 지역에 공영주차장 건립을 요청하셨습니다. 평소 모든 의원님들께서 우리 현안 중의 하나인 공영주차장 확충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불법주차 단속업무의 어려움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의원님이 계시는 3동에 저도 살고 있는데 저희 안사람이 그곳에도 가기도 하고 주민들이 얘기를 전하는 바에 의하면 구청장 욕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 간선도로나 이면도로에 대해 단속이 심하다고 그래서 그 주민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종로에 사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 창신3동 창신초등학교 주변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물론 종로구민이 아니라고 해서 단속을 심하게 하라는 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개 우리 주민들은 종로구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많이 협조해 주셔서 오히려 외지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영업을 하고 영업의 이익을 많이 보면서도 무질서한 주차 행태 또 터무니 없는 주장을 많이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다수보다도 극소수의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융통성있는 단속도 필요하다고 저는 누누이 주장하고 교통행정과장이나 지도과장에게 그렇게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각 동에서 좀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다면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

다. 소방도로 확보 및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하여 강력하게 단속을 요구하는 또 다른 민원이 있다는 것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단속을 많이 한다고 불만이 있는 주민이 있는가 하면 왜 단속을 안하고 선거가 가까우니까 의원들이 이렇게 봐주기도 하고 구청장이 봐주기도 한다는 그런 소리를 저도 직접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런 양갈래의 민원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좀더 융통성있게 합리적으로 단속이 되었으면 하는 것도 의원님들과 저와 같은 생각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가능한 한 융통성있는 단속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창신 23-52의 6필지에 대한 공영주차장 건립 여부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조사되고 있으므로 소유자와 가격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이 협조를 해주시면 실질적으로 성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낙산아파트 철거부지의 활용계획 그리고 관급공사 시 발생한 토사 등이 철거부지에 적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낙산 시민아파트는 위원장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작년 말에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모두가 노력해서 당시 조순 시장께 이 보상금액이 많도록 요구해서 다른 지역보다도 2배의 이주비를 산정했으나 그것으로는 통하지 않아서 무척 애를 썼는데 25평 짜리 아파트를 제공하게 되어서 무려 6,7천만원을 호가해 가지고 우리에게는 특히 동승 시민아파트 측에서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아주 기분 좋게 이사를 가신 지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 현안이 해결된 곳이기도 합니다. 걱정하신 대로 철거부지를 낙산공원화 지역이 아닌 그 철거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이것도 우리의 관심사 중의 하나 일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연립주택이 적합한 지역은 건립하도록 하고 기타 지역은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공원 등 주민 편의시설을 도입하도록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해서 철거부지 활용계획이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 그리고 토사 적치 문제는 우리 구 관내에 활용할 공지가 전혀 없다보니까 부득이하게 발생한 일로 보고 받았는데 향후 이런 일이 있으면 미리 통지도 하고 해서 사전에 미리 협의해서 조치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종로를 걷고 싶은 거리, 아름다운 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칭찬을 해주신 반면에 기업형 노점상 대책 그리고 창신초등학교 앞 노점상 단속에 감사하신다는 말씀도 하시고 몰지각한 사람들이 방노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점상 대책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종로나 중구 지역이 특히 이런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좀 유연하게 대처해달라고 하고 서울시에서는 가차없는 단속을 원하고 해서 소위 어느 장단에 춤을 출지 모르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는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일 중의 하나인 노점상 문제로 우선 할 수 있는 것은 영업을 할 수 있는 시간대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또 신규 노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느새 가보면 수없는 노점상들이 아주 불야성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구청장인 제가 6년을 재직하면서도 손바닥 보듯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은 차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일이기 때문에 누누한 그런 말씀을 올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 미화원과 마찬가지로 단속반 수도 절반 이상 줄여버렸습니다. 구조조정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저는 시장에게 틈이 있을 때마다 단속을 하라고 하면서 그렇게 행자부에서 일률적으로 정원 감축하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하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더군다나 종로에 한해서는 가장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줘야 된다고 우리 구민의 혈세로 수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유동인구 서울시민 300만명이 행정수요를 일으키는 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없다, 우리 단속반이 퇴근 후에 단속을 하려고 한다면 거의 오후에 노점상이 나오고 있는데 특별한 수당을 주거나 특별 예산을 줘야 할 수 있는데 그러하지도 못하고 또 이제는 노점상들이 얼마나 많은 숫자가 늘어나 있고 '전국노점상연맹' 해서 걸핏하면 구청에 와서 집단대응을 하는 등 우리로서는 중과부적(衆寡不敵)인 일이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싱가포르처럼 모든 노점상을 한쪽 지역으로 몰아붙여서 관광명소로 만드는 그런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노점상에 대해서 적법한 그런 위치를 선정해주고 세금을 받는 그런 일을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손을 놓고 멍하니 쳐다보는 정부나 서울시나 이런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을 저는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 문제를 의원님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우리 종로의 아름다운 거리가 훼손되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참으로 통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거기에 나아가서 한전 배전박스 같은 것이 우리 주요 거리에 흉물스럽게 널려져 있고 그 배전박스에 수많은 침지물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행법이 그런 침지물에 대해서 전화번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하는 법이 별도로 없고, 뿐만 아니라 한전에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해도 예산 부족을 탓하면서 처리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종로구정을 수행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잘 아시는 쓰레기 문제 이 문제도 우리가 600년 된 고도이기도 하고 또한 그런 공간이 없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틈만 있으면 고궁 옆에 쓰레기 적환장을 비롯해서 문화제를 훼손시키는 범법자들로 이렇게 매도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저희들뿐이겠습니까? 종로구를 대표하는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비난받는 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현실인 만큼 오래 전부터 고궁 옆에

있는 그 적환장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느 집 옆으로 오라고 하는 사람 한 분도 없습니다. 저희들은 인왕산 자락에 그 시설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500km 떨어져 있어도 절대 반대하고 그런데 하물며 집 옆에 그 시설을 한다고 하면 찬성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존경하옵는 의원님들! 우리 구청 뒤에는 큰 쓰레기 적환장이 있습니다. 여기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그 낙원동 쓰레기 적환장이 이리로 온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악취를 맡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무실에서 비난을 들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원동의 숙원사업인 민족의 성지인 탑골공원에 독립운동 유족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로 가져온 것입니다. 이렇듯 종로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아무리 역대 대통령이나 시장에 수 없는 탄원서, 진정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해결한 바 없었습니다. 여기에 洪 前 議長님께서지만 우리가 힘을 합해서 그것을 해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느 누가 한 일이 아니라 우리 주민이 버린 생활쓰레기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이 버리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이어서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쉽 없이 시에다 중앙정부에다 계속해서 이런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서 의원님들과 더불어서 이런 현안 문제가 해결되도록 꾸준히 노력하였으면 합니다. 지금 노점상 문제는 서울시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것이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발표와 함께 저희는 7월 한달 동안 계도기간을 가진 후에 8월 중에는 집중단속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시에서 전반적인 용역 계획이 나와서 합리적이고 또 우리가 바라는 깨끗한 종로 거리가 되도록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서 李東奎 委員長님의 질문에 간략하게 답변을 올립니다마는 모두에 崔康洵 議員에 대해서 참 깊은 애정을 가지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애도했고 또 우리 구청과 창신1동 동민을 위해서 정말 피와 땀과 눈물로 헌신 봉사해온 崔

康洵議員이었기 때문에 참으로 빈자리가 허전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유지를 받들어서 행복이 샘솟는 종로 건설이라는 캐치프레이즈에 혼연일체가 되어서 하늘에 계신 崔康洵議員님이 항상 기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까 합니다.

다음으로 金福同 財務建設委員長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가로수 문제 특히 옷자란 가로수의 전지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 가로수가 7,000여 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가로수는 경관도 도와주고 또 공기 정화도 시켜주는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가로수일 것입니다. 특히 버즘나무는 무성하게 자라고 해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간판을 가린다고 해서 높은 전지를 해달라고 하고 폭풍우로 그렇게 넘어지는 사례도 있어서 그런 위험수목에 대해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금년에 버즘나무는 조사한 가로수를 250여 주를 전지한 바 있습니다. 주로 전지는 겨울철을 앞두고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환경단체에서는 강전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특히 절대 강전지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전지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그런 나무가 쓰러질 우려 그리고 좁 경관에서도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전부 급한 것은 빠르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닥쳐올 장마에 턱없이 부실한 준설관과 하수관의 연결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수해예방 종합본부를 매년 6월이면 설치하고 예방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확대간부회의에서 주문하고 있는 것은 각 동장님들에게 지금 각 동이 공히 의원님들과 더불어서 주민문화복지센터도 생기고 해서 우리 동은 우리 스스로 해결하자는 그런 슬로건 아래 많은 일을 해주고 계십니다. 적은 예산을 의원님들이 책정해 주신 데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꽃도 화분

대에 심어주고 많은 좋은 일을 해서 각 동이 공히 아름다워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또 주문을 했습니다. 간단한 하수도 준설 정도는 동민들이 자생단체들과 직능단체들을 같이 동원해서 그런 것을 준설해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우리 동네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보람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서 한편으로 부족한 일손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토목과에서 미리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아직도 태반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점검토록 해서 본격적인 장마철에 대비토록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金福同 委員長님과 李憲九 委員長님께 공동적으로 질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개 점포에 대해서 2개의 간판만 허용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과중한 과태료를 부과할 의향은 없는가, 또 간판수입세의 수입은 얼마나 되는가, 또 2001년의 불법광고물 단속건수와 수거물 보관장소 등 그리고 현재 서울시 평가에서 종로구 순위는 몇 등인가 이렇게 또 많은 관심과 또 애정을 보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구청 앞 광장에서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입간판을 뺐어왔는데 그 사람이 쫓아와서 왜 이것을 가져갔느냐 해서 막 큰 소리를 치고 했습니다. 우리 종로구가 처한 입장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쓰레기 문제나 노점상 문제나 뿐만 아니라 수없는 그런 난제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걸고 이 불법광고물 정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보고 말씀드릴 것은 상당수의 구청장이 이 불법광고물을 단속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찬동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선거를 1년 앞두고 인기정책이다 이렇게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구청장들에게 물어보니까 수많은 민원인들이 몰려와서 우리 어떻게 먹고 살라고 이러한 짓을 하느냐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류했다고 하는 소리를 직접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는 이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난감하기

짜이 없었지만 우리의 대표적인 거리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같은 소신을 갖고 임하게 됐습니다. 제가 기억키로는 李東奎 委員長께서 게릴라식 단속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전예고를 말씀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답변을 안 했네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전국 최초로 사전예고제를 했습니다. 5분 예고제, 10분예고제까지 했는데 그것 때문에 서울시에서 단속이 절대 안된다고 일괄적으로 저희한테 사정하면서 전 구가 사전예고제를 없애달라고 해서 만장일치는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도 거기에 굴복해서 사전예고제를 없앴습니다. 그런 사정을 이해하시고, 그러나 모든 행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사전예고제를 도입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업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예고제를 했습니다. 원칙도 그러려니와 우리가 좀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서울시 시장 명령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철거도 하고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오니 자진 철거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적어도 보름 이상의 시간을 줘 가지고 정말로 많은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제일로 어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랭킹 2등입니다. 2등을 한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단민원이 없는 것은 우리가 그런 친절하게 담당공무원이 가서 사전에 인사드리고 그 어려움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해서 거의 주민들이 호응해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부구청장 회의 때 서울시장께서 종로가 제일 잘한다는, 시장님이 우리 부구청장님 앞에서 말씀하신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것이 7월말까지 해서 상금을 줍니다. 참으로 우리가 정말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왕산로를 그렇게 해야 되어서 지금 준비하고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용이 그렇다는 말씀과 함께 또 의원님들이 걱정하신 바대로 어느 한 사람이 자기 집 영업을 위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간판을 길에다 내놓습니다. 그러면 그 뒷사람이 안 보이니까 또 그보다 더 보도에 내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의 보행거리도, 차도까지 막는 이러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종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그런 수거를 해오고 다시 법이 3만원만 주면 다시 내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표를 의식한다면 그런 일을 못하겠죠. 그러나 저는 맹세코 의원님들 앞에서 표를 의식해서 철거를 않거나 수거를 않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민원과 또 도시미관 사이에서 합리적이고 융통성 있는 일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6월 30일 현재 고정광고물 3,979건 중 3,865건을 철거해서 97%의 정비율과 입관판 및 유동간판은 47건을 수거했습니다. 또한 수거된 광고물의 보관장소는 우리 구와 철거용역업체의 보관창고를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울시 평가순위는 종합 2위에 랭크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위생업소 청결문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식품접객업이라는 것은 적법한 건물 내에서 음식류 및 주류 등을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영업시설이 식품위생법, 건축법, 도로법 등 제반 조건이 충족돼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식품접객업소가 6,588개 신고되어 영업 중에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민·관 합동으로 단속반을 하루 6명으로 구성해서 주 6번 청소년 유행행위 및 업소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동대문 일대 먹자골목 음식점은 도로를 불법 점유해서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명령을 할 경우 노점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제가 지시했습니다. 개선하도록 해당부처에 건의해서 노점상 허가를 내지 않은 불법 노점상이라 하더라도 국민 위생에 저해가 되는 그런 노점상이라 할지라도 위생단속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의원님의 의견이 충족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화재에 취약하고 철거 후 산업쓰레기

가 되는 조립식 패널(panel) 가설건축물의 규제 용의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서울시건축조례에 의하면 가설건축물은 조립식 구조로만 축조토록 되어 있어서 화재에 취약한 패널(panel)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코자 가설건축물을 축조코자 하는 건축주에게 적극 일반 건축물로 축조토록 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방화자재를 사용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철거된 가설건축물의 산업쓰레기에 대해서는 지정된 업체에 의뢰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실제적으로 의원님이 관찰하신 바대로 그런 스티로폼이거나 그런 화재위험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아울러 향후 가설건축물 축조시 방화자재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서울시에 조례개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앙선 침범 특히 불법 유턴하는 데 예방으로 탄력봉 설치 문제를 지적해주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종로4가 종묘공원 앞 및 승인사거리 삼우텍스플라자 앞 도로 중앙선 침범과 관련하여 교통사고 예방대책은 관할 동대문경찰서에도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요청해서 구에서는 지난 1차 추경에 사업비 2,732만 5,000원을 확보해서 아까 언급하신 바대로 그것을 설치했고 6월 13일 종묘 앞 도로에 35개, 승인사거리에 33개의 차선구제봉을 설치 완료했으나 간격이 6m로 너무 넓지 않느냐는 의견에 대해서 재검토해서 보완할 것입니다. zase히도, 자로 재셨습니까? 하여튼 대단합니다. 저도 잘 알지만 지봉길이 도로를 25m로 확장하면서 좌회전을 만들지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수없이 경찰청에도 동대문서에도 얘기를 했는데 좌회전을 허락하지 않아서 삼우텍스 앞으로 가서 불법 좌회전을 해가지고 지봉길로 들어서서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경찰청에서 허락을 해줘 가지고 좌회전이 되기 때문에 거기 가서 유턴하는 차들이 많이 격감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답변에 대신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洪起瑞 運營委員長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자원봉사업무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질의해주시는 데 대해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98년 1월 15일 종로구 자원봉사센터가 설립된 이후 이것도 국내 초유인데요 현재 활동 중인 자원봉사단은 43개 단체에 3,400명에 이르고 저소득 이·미용 봉사 그리고 수지침 봉사, 병원환자 돌보기 등 각종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전 국민의 65%가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13% 정도로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도가 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유엔이 정한 세계 자원봉사의 해이며 또한 한국방문의 해로서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있어서 봉사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게 평가되어 우리 구에서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19개 동 600여 명의 단원을 중심으로 종로구 자원봉사단을 조직해서 금년 3월 28일 발대식을 갖고 봉사활동에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 특성에 맞는 고궁, 전통거리안내소 등에서 통역안내 활동, 월드컵 대비 질서캠페인, 저소득가정 돌보기, 각종 문화복지센터 주민강좌 참여하기, 장애인 세상 구경시켜주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또한 자원봉사자 수준향상을 위한 분야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민간주도 자원봉사활동 체계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원봉사제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으로 유공회원에 대해서는 표창 및 격려를 통해 긍지를 갖고 자원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간담회 등을 통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발전적인 봉사활동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여기에 또 지적하신 학생 자원봉사활동을 학교와 유기적 협조를 갖는 게 어떤가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그 추진사항을 보고 말씀드리자면 불우 복지시설 위문도 시키고 또 자연보호활동도 시킵니다. 가로변 휴지 줍기, 껌 떼기 등도 하고 또 관공서 일손돕기, 또 고궁문화재 가꾸기 그래서 참여학생 봉사활동의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답변보다도 실제적으로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핵심적인 것은 그 수적인 것보다도 질적인 것의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많은 적당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원봉사활동이 내실있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좀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하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청소년들이 자원봉사활동을 몸에 익혀서 보람있고 뜻있는 자원봉사활동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洪起瑞 運營委員長님께서도 좋은 고견이 있으시면 저희들에게 많이 하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한 농, 한 회사와 결연 추진방향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이것도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것은 행정의 주민참여시책의 일환으로서 좋은 제도로 사료되는 일이고 그동안 우리 구에서 자연보호활동, 깨끗한 종로가꾸기, 이웃간 서로 돕는 인보협동 분야에서 특정 기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에서도 이러한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 동은 동별로 소재한 기업과 단체 등과 자체적으로 추진해오고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실적이 사실상 미흡합니다. 이의 활성화를 위해 각 동과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과 연결해서 현안사업 등 공동으로 논의하고 추진토록 할 것입니다. 그간 기업체가 구정에 참여한 실적에 대해서는 너무 많기 때문에 약간만 말씀드리자면 자연보호활동에서는 삼성SDI와 강북삼성병원, 삼성생명이 인왕산 유래찾기 안내판을 제작해서 부착해줬고 새집 만들어주기도 하고 서울 성곽 가꾸기도 하고 북한산 국토대청결운동에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 도심환경가꾸기에서는 관철동 튜올립축제, 분전함 도색, 보신각 가꾸기, 사직단 단장, 효자로 가꾸기 이러한 것을 삼성에 버랜드에서 해줬고 충무공 이순신 장군, 신문에도 나왔지만 그러한 세척에 대해서도 여러 군데서 해주셨습니다. 교보생명을 비롯해서 교보생명에서는 이순신 장군 안내조형물 그리고 종묘시민공원, 사직공원에 시계탑을 설치해줬고 독립문로터리 벽화도 삼성사회봉사단에서 해줬고 대성그룹에서

는 꽃씨나누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인보사업이나 기타 사업에 대해서 많은 일을 우리가 참여토록 해서 그 기업체들의 참여 회수는 많습니다. 그러나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더 동에 있는 그런 기업체들도 중소기업체들도 많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명륜3가동 1-1027번지, 1-1035번지 소방도로 해체 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중기투자재정계획에 의거해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추진한 바 있으나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여건상 도로개설이 크게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또한 특히 도시계획시설로도 결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2000년 사업계획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위원장님께서 주장하신 해체와 다름없는 일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수돗물 물탱크 청소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청소할 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지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런 점에 대해서도 상수도본부나 중부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청소시기 그리고 청결히 되었는가 그리고 주민들이 참여토록 우리가 그렇게 의견을 전달할 것입니다. 내용을 알아보니까 연 2회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는 5월경에 하고 하반기는 10월경에 청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확인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마시는 물이기 때문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통·반장 보상품 구매지급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의원님들도 더러 그러시겠지만 이 점에도 제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런 업자들이 찾아와서 추석명절에는 이것을 써주십시오, 저것을 써주십시오, 수없는 청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찌 그 뿐이겠습니까? 예를 들면 조그만 인쇄물이거나 뭐거나 찾아오는 사람들이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소위 높은 데서부터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알선으로 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담당자에게 소개시켜주는 일은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일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처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저도 이 문제를 결정하지 못하고 가령 통장 보상품이면 통장의 의견을 받습니다. 그리고 동의 담당 직원들과 더불어서 그 의견으로 해서 거기서 가장 점수가 높은 것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과 저는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많기 때문에 다량 구매하면 아주 싸게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선택되는 것을 보면 농협상품권입니다. 저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농협상품권은 하나도 에누리가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많이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가만히 그 이유도 자꾸 물고 했는데 본인에게 그렇게 필요한 물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필요한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도 참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륜3가동의 통장님들이 어떤 물품을 선호한다면 그렇게 선택 되도록 하면 불만이 적을 것입니다. 그러나 19개동의 통장님들을 일률적으로 그렇게 결정한다면 불만이 크리라고 생각되고 또 체육복 등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자면 하여튼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참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한 회사를 선택해서 전체의 체육복을 구입하면 거기에 특혜를 줬다고 그런 비난도 듣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도 동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드리고 동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도 되기도 하고 또 동별 좋아하는 색을 선택하고 디자인을 선택하는 그런 기회를 드리려고 이렇게 하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연구해서 보고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세대 추석과 설날에 지급하고 있는 보상품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농협상품권을 구매 전달하도록 요청하여 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의변경은 어렵다는 말씀이지만 이 점에 대해서도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버스 정류장 조정 건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이것은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 제8조3에 의거 일반 노선버스 운행계통에 마을버스 정류소는 3개소 이내에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명륜동 마을버스는 명륜동, 혜화전철역, 종로5가, 종로4가를 경유하는 노선으로 노선버스와 운행계통이 같은 정류소가 12개소나 돼 가지고 의원님이 말씀 해주신 사항은 별도로 서울시와 협의해서 이용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시조례가 그렇다 하면 구조례로 바꾸어서 하면 어떠냐 하는데 참 좋으신 의견인데 모범을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10㎡미만 생계형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서울시조례 개정용 의의는 없는가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서민의 대변자로서 마땅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같은 고민을 위해서 지난 선거에 개인적으로 중앙정부에 그리고 당에 대해서 회의에 가서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시기에 정년 표를 얻고 싶거든 이러한 어려운 생계형 서민을 위해 '80년대에 해왔던 양성화를 해줘야 한다 해서 상당수 양성화를 해준 그러한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도 끝도 없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건축하는 사람은 한 평이라도 더 지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행강제금을 몇 번 물고 나면 흐지부지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 이러한 것이 극소수의 공무원들에게 그런 빌미를 줘서 검은 돈 거래를 하게 되는 요인도 되어 왔습니다. 더군다나 아시다시피 질문에서 나오니다마는 또 법이 공무원이 그런 데를 나타내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그 자체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공무원이 그렇게 책임져야 할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공무원이 가만 거기서 부정으로 같이 손을 잡는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그 법을 만들었는지 몰라도 이런 법이 개정

되지 않고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10m' 소규모 생계형 무허가건물은 사실상 부과를 유보하고 있는 형편인 것입니다. 차제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련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물론 건의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청장협의회에서도 '99년도에 서울시와 건교부에 건의해서 2000년도 1년간 한시적으로 85m'이하의 위법 주택을 양성화하여 서민의 고통을 덜어준 바 있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척시설도 되어 있지 않고 안전시설도 미비하고 파쇄장을 예를 들자면 좋지 않은 그런 혐오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문제라든가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금년 내에 그런 것은 보수할 것으로 하고요 또 대폐차 문제에 대해서 금년도도 8억 9,000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16대의 새로운 청소차를 구입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그런 노후차량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鄭泰淳 運營委員會 幹事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질 높은 서비스 방안이 없는지 이러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끝없이 추구해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제가 시작되면서 모든 국민에게 주장하고 또 그렇게 목표를 설정해놓고 달려온 것이 질 높은 행정서비스일 것입니다. 저희도 처음부터 의원님들의 도우심으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거의 모든 그런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그러한 많은 금자탑을 쌓게 되었습니다. 저는 취임 이후에 자치행정발전추진위를 구성해서 주민과 직원들로부터 아이디어를 접수해서 행정서비스 개선에 반영해서 민선2기에 들어서며 친절도우미팀을 가동해 가지고 다양한 교육과 평가를 실시해서 각종 평가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왔고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아시는 일이지만 시민 만족도에 연속 최우수구로 2년 연속 됐고, 금년에는 5

개 분야에서 평가한 결과 민간행정분야 2위를 했습니다. 이 점도 제가 그 속사정 얘기를 가끔 말씀드리는데 종로구가 25개 구에서, 전국에서도 그렇고 서울에서 연속 2년 최우수구로 됐는데 거기만 상을 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너무 많은 비난을 받기 때문에 이번에 좀 양보해라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속사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럼에도 올해도 저희가 8억 4,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는 기쁜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꾸준히 질 높은 행정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질책해주신 덕분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원행정 분야에서 행정자치부에서 가장 모범 구로 선정해주고 또 저희들은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국·내외 우수 자치단체를 방문해서 이 시책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주민을 만족시키는 그런 질 높은 그러한 행정을 펴나가기로 하고, 아시다시피 국제적으로도 우리가 ISO9001 인증을 받도록 하겠고 또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를 상대로 앞서가는 행정을 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혐오시설 유치에 따른 보상대안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이것도 참 시의적절하고 훌륭한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뉴욕에 갔을 때 허드슨강에 그 쓰레기 처리장을 방문했습니다. 의원님들도 보셨겠지만 외국엔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민들을 위해서 넓은 잔디운동장을 만들어줬고 수영장을 만들어줬고 스케이트장을 만들어줬고 여러 가지 복지시설을 완벽하게 갖춰주고 지하에 쓰레기처리장을 뒀었습니다. 또 일본 같은 데서는 그런 쓰레기처리장의 주민들을 위한 그런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문화체육센터를 해줘 가지고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또 거기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로 뜨거운 물을 공급해서 그 인근 주민들에게 무료로 공급하는 등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좋은 의견이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 이 점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과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의견을 청취하고 적극적인

로 의견을 반영할 그런 용의는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무원 자체로도 그런 연구기관처럼 두고 있지만 틈이 있을 때마다 구민들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정책에 반영도 하고 해서 수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 수립과정에 대해서 필수적인 것이 의견 수립이니 만큼 지적해주신 대로 더한층 주민의 의견을 반영토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람·공고, 사업설명회 등 개발사업에서의 사전 절차를 반드시 이행토록 하고 주차장 건설, 도로건설, 도시계획사업, 문화복지시설 건립 등에도 주민의 의견을 제도화시키고자 노력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의원님들과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여론 수렴 방안을 연구해 실천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구정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종로구청사 신축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역발전과 주변환경 변화의 선도적인 역할 및 몇 백배의 효용가치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는 신청사 신축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질문도 해주신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부 의원님들께서 몇 년 된 질문을 또 하게 된다 하는 고언의 말씀을 주신 것을 저도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 지적사항이나 당부사항도 보면 거의가 지연되거나 불가한 내용 외에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이 상당히 아직도 경직성이 있고 해서 잘 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의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바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참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년 임기가 남았기 때문에 저는 의원님들과 똑같은 임기를 가지고 있고 똑같은 파트너로서 함께 손발을 맞춰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이란 말씀과 함께 이 신청사 문제도 의원님들과 더불어서 걱정하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의원님

들께서 의정활동을 하는 데도 제대로 연구할 방조차 없다는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저도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현 金以煥 議長님과 많은 언쟁을 하는 것 중에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공무원들도 대한민국에서는 사무공간이 가장 협소한 그런 공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셔 가지고 의회가 이렇게 좁게 자리잡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의견이 충분한 그런 필요한 것이라고 사료돼서 林鍾植 議員님께서 나중에 질문을 주셨지만 지금 옥상에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의원님들이 좀더 나은 환경에서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행복한 종로, 아름다운 종로 건설에, 참 편리하게, 편안하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신청사 문제는 아시다시피 소방본부 문제가 해결되면 즉시 진행할까 합니다. 여기에 지적하신 바는 있지만 그때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몇 개의 회사로부터 가설계도 받았습시다만 그때는 IMF 전이기 때문에 수없는 그런 실력있는 대기업들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IMF이기 때문에 그 중단된 상태이고 소방본부가 작년 연말까지 시장께서 약속하시길 남산으로 이전토록 했기 때문에 우리가 동시에 진행을 했었습니다만 소방본부 이전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 땅 문제 그것이 아직 미결이므로 시장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약속을 했기 때문에 소방본부 이전과 함께 우리는 신청사를 만들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당당한 대한민국 일번지의 그런 구의회도 만들 수 있고 또 우리 종로 일번지 1,400여 공무원이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신청사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또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구청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그런 뜨끔한 지적도 해주셨습니다. 미대사관 앞예를 가보면 구청 차가 즐비하게 있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예를 들면 세설차 같은 것은 1년에 1회 정도 쓰지만 그 차가 없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 되어서 그 차량을 둘 곳이 마땅치 않아

서 겨우내 대사관 앞에 두고 있거나 열린시민공원에 두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정식으로 선을 그어서 합법적인 주차구획선 안에 두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범이 되어야 할 공무원이 불법을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丁炳煥議員님께서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로구위원의 재산신고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개인정보 누설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의원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일인데 구보에 공개하는 이유는 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과 재산공개제도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와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81년 12월 31일 공직자윤리법이 제정·공포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게 공포되지 않았으면 저도 원합니다. 정말 어찌면 부끄럽게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난한 구청장이 종로구청장이고 또 빛이 많다는 것이 공표됨으로서 저는 상당히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불편할 뿐이다라는 말도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구청장이 그렇게 빛에 어느 정도 허덕이는 이로 보여서는 안되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가 말하기를 악법도 법이라고 말하면서 죽어갔다고 하는데 이 법이 현존하는 것이 이렇기 때문에 이 공직자윤리법 제10조 등록재산의 공개 제1항1호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은 재산변동사항을 신고 후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구보에 공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 점도 우리가 많은 자료를 준비해서 좀 효과적으로 공개가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로거리 포장마차 정비를 말씀해주셨는데 아까 제가 장시간에 걸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답변은 서울에서 용역을 쥐 가지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단속 상황이 정리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 답변으로 대신하고 싶구요, 저희는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업종변경 등 자율적으로 정비하도록 계고장을 발부하는 등 단속을 병행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율정비기간이 끝나는 8월 말경부터는 서울시와 협조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특히 걱정하시는 기업형 포장마차가 정비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야간 소방도로 확보를 위한 불법 주차차단속 대책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지난 번 홍제동 화재사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초미의 관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좁은 골목길에 양쪽에 주차를 해서 이 커다란 차가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것을 걱정하는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저도 만약에 불이 나면 어떻게 될까 조마조마한 그런 골목길을 얼마든지 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는 한편으로는 주민들이 주차할 곳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한쪽에 한 면 주차만 할 수 있도록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일면 주차, 양쪽으로 주차할 수 없도록 해서 대형차가 드나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좀더 예산이 허용하는 한 그리고 국가나 시에서 교부금이 확보되는 한은 더 많은 도로 증설을 해서 그런 화재에 대비하는 그리고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직원들의 성비 불균형으로 인한 업무추진 시 불편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시의적절한 질문이십니다. 저희들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 시험을 보면 약 70%가 여성이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직원 234명 중에 여직원은 84명입니다. 퍼센트로 벌써 36%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직원이 여직원이 많은 것은 신규채용자가 제일 처음에 동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여직원이 더 늘어난 것뿐만이 아니라 동기능 전환으로 해서 기능직 여직원이 많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직 같은 그런 여직원이 배치됨에 따라서 동비율이 구청보다 높은 게 사실입니다. 특히 의원님 말씀하신 무악동에 여직원 비율이 높아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다고 그러니까 확인해서 균형있게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세 체납액 증가와 교통위반 과태료 징수 대책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2001년도에는 구세의 체계적인 체납 관리를 위해서 전담직원 13명에 의한 체납관리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체납자 개별 사안에 따라서 징수, 공매, 불납, 결손 등 제반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1년도에는 체납지방세 중점 정리기간을 연3회 실시 운영해서 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 급여 압류, 관허사업 제한 및 취소, 부동산 공매, 검찰 고발 등 강도 높은 체납징수 활동으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2001년도 연말까지 13억 9,200만원을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금년도 구세 체납액 57억 4,800만원의 24.3%에 달하는 것으로 지난해 징수율 18.5%보다 5.8% 향상된 실적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교통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 고액 체납자 특별관리, 인터넷망을 통한 홈뱅킹 도입을 추진하고 체납에 대한 가산금의 신설과 미납차량의 운행제한 등 제도개선을 서울시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체납징수 실적이 2위까지 간 그런 말씀도 드리고 구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李憲九 豫算決算特別委員長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30억원을 투입해서 인왕산 주변 군사시설물을 철거한다고 했는데 언제쯤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도 상당기간 전부터 지적하신 건데 잘 시행이 되지 않아서 상당 부분 다시 질문하신다고 하셔서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불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철거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물일지라도 환

경 친화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에 약속드린 사직공원에서부터 북악팔각정까지 5.8km구간의 기존 철망 펜스를 철거하고 수풀문양의 알루미늄으로 교체하는 사업은 시비 30억원을 지원받아 이 달 중에 착공해서 금년 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란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나머지 군사시설에 대해서도 군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교동 2번지 일대 소방도로 문제입니다. 지금 소방도로 개설 요청 구간은 공원용지로 되어 있고 현재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으로 수 차례 검토한 바 있습니다. 공원 내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추가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확보 등이 전제되어야 하고 도로개설이 필요한 지역을 종합 검토하여 의원님께 보고한 후 사업비 반영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림שמ목원을 인근 초등학교에 위탁토록 하면 어떤가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초등학교에서 위탁 관리하면서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좋은 의견이라고 사료됩니다. 초등학교에서 관리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위탁관리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북궁 영추문을 개방할 의향은 없는가를 질문 주셨습니다. 효자로에 위치한 경북궁 영추문을 개방해서 주민 휴식 공간으로 제공하자 하는 문화재청과 협의를 했으나 경북궁은 연간 200여 만 명에 이르는 내·외국인이 방문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문화유산이자 관광명소로서 이의 철저한 보존관리는 문화재의 보전과 관광정책상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또한 경북궁은 현재 원형복원공사 중인 바 경북궁 관리여건상 영추문 개방은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향후 경북궁 복원공사가 완료되면 문화재청과 재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옥인동 불국사 옆 담장 철거 건입니다. 이 담장은 누가 설치했는지 파악하고 군부대 등과 협의하느라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금년 하반기라도 철거토록 하고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펜스를 대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옥인동 재개발과 관련하여 군부대와 협의 결과 3층 이하로 건축하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사전 협의한 경위는 무엇이며 그렇다면 인근에 건축한 4층 건물은 모두 불법인지, 그리고 3층까지 제한 받는다는 내용을 왜 사전에 알리지 않았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개별 건축허가 시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 한해서 군부대와 사전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말씀하신 옥인동 일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4층 건물들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의 경우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아니라도 군부대를 비롯하여 관련 기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옥인동 지역뿐만 아니라 작년에 재개발이 끝난 무악동 현대아파트를 비롯해 청운동 현대아파트 창신동 쌍용아파트 등도 모두 군부대와 사전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의 의견을 사전에 예단해서 주민들에게 통보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층수 제한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불편 해소 및 규제완화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도 군부대가 직접 방문하여 재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지속적인 완화 촉구를 하고 있는 바 군부대 측에서도 다시 검토하여 가부간에 7월 15일까지 회신해주겠다는 답변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누하동 35~93번지간 도로확장공사 보상비 부족으로 일부 구간 제외 및 보상이 지연되는 그런 사유를 질문 주셨습니다. 본 공사는 시교부금 10억원을 배정 받아 누하동, 통인동 폭 6~12m 연장 250m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로서 보상을 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시행한 결과 평가금액이 12억원으로 예상금액보다 높게 평가되어 부득이 누하동 212번지에서 통인동 76-3구간을 제외하고 변경인가 고시를 2001년 6월 19일 하게 되었습니다. 보상물건은 건물이 38동, 토지는 37필지, 영업권은 15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부족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에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예산이 배정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조속히 도로가 확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현재 인가고시 및 감정평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협

의 보상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朴鍾植議員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건축법상 주거지역의 안동네, 이른바 맹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건축 시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관련법 개정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현행 건축법령은 모든 규정이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 비록 공무원이 현장을 가더라도 재량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고 일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건축하려는 대지가 위치에 따라서 불이익을 겪는 사례도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불합리한 법규정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불이익을 당하는 주민들이 없도록 해달라는 고건을 주신 사항으로써 현행 법령에 불합리한 규정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보면 법령 개정을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실이 협소하여 의정연구나 민원인 접견에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해소대책을 말씀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구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그런 것을 챙기지 못한 불민함을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증축공사는 8월 말에 완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공기일을 맞춰서 그렇게 사무실이 확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완공과 함께 사무실 재배치 문제는 의원님들의 고건을 반영해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청장 취임 6년간의 업적과 남은 임기 동안 마무리는 무엇이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런 질문을 주시면 여러 가지 감회가 새롭고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저에게는 참으로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이 짧은 시간에 그 많은 얘기를 다할 수는 없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중앙케이블 TV가 이것을 녹화방송하기 때문에 지루하더라도 많은 것을 자랑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효율적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고 하면 만 6년을 의원님들 덕분에 앞만 보고 달려온 세월이었다고 사료됩니다. 여러 가지 회로애락이 점철된 6년이었지만 얼마나 바빠 달려왔으면 6년이 흐르지도 잘 몰랐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존경하옵는 의원님들이 개원 10주년을 맞이한 것을 제가 참석해서 벌써 10년이란 강산이 변하는 그런 세월을 우리 종로구민을 위해서 헌신 봉사해온 의원님들에 대해서 저는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과 없이 6년을 보낸 것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의원님들의 훌륭하신 이끄심과 성원 그리고 20만 구민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돌아오는 종로를 만들자 그리고 행복이 샘솟는 아름다운 종로 건설을 같이 해보자 해서 성공적으로 기반이 튼튼해지고 도약의 시기를 우리는 달리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모든 분들께 참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크게 대변해서 말씀드리어서 우리 업적이라고 한다면 우리 종로구가 그 동안 떠나는 종로였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 못할 것입니다. 국가 정책이 강북 개발억제 인구 분산책으로 해서 모든 종로구민이 떠나고 20만이 채 안되는 구민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정말 눈부신 활동을 의원님들이 각 동에서 열심히 해주신 덕분에 우리는 서울시 불량주택개량기금의 50% 이상을 매년 가져와서 수많은 동네의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해왔고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해서 도심재개발 또는 주민복지향상 그리고 주민의 질 높은 삶을 위한 여러 가지 그런 복지공간들을 확충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숙원사업을 많이 해결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크게 기억나는 것은 낙산시민아파트가 우리 민원의 보고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원성을 가지고 있던 곳이었는 데 거기를 서울시 사상 1,000억원을 투입해서 좌청룡인 낙산을 공원으로 만들어서 우리 구민 품에 다시 보내어진다는 그런 쾌거를 우리 의원님들과 더불어서 우리 같이 해냈던 것은 참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지 종로를 외치면서도 구민회관 하나 없는 종로에서 살고 있었습니

다. 이 점 역시 의원님과 더불어서 열심히 일한 덕분에 동부에 구민회관을 260억원을 들여서 어느 구에 못지 않은 최신식 시설로 마련했고, 해화동의 88기념관을 우리가 접수해서 중부에 그런 훌륭한 시설을 갖게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서부 사직동에 그런 시설을 착착 준비중에 있어서 우리는 공히 선진국 수준의 그런 문화복지시설을 갖출 수 있다는 자긍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감히 의원님들과 기뻐해 마지않으면서 뿐만 아니라 우리 예산 총액이 재정자립도가 100%를 훨씬 넘는 그런 자치단체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또한 재정운영 면에서 행정자치부가 전국 수많은 자치단체 중에서 재정운영 면에서 최우수구로 선정하는 그런 기쁨, 그리고 수많은 구민과 모든 분들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일해준 덕분에 불초 소생이 행정대상을 오로지 저 혼자 연속 2번이나 수상케 했던 일이라든가 또는 위대한 서민대상을 받게 해주신 것과 그리고 필라델피아 상원의회에서 민주화에 공헌한 바 인정되고 지방자치 발전에 큰 노력을 했다고 해서 상원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표창장을 수여해준 점, 그로 인해서 미국 코엔대학에서 명예 정치학 박사를 준 그런 기쁜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종로구민이 모든 생활체육에서 석권을 해서 이제 종로만 보면 많은 구민들이 두려움을 금치 못한다는, 타 구민들이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우리 종로구가 되었다는 것을 참으로 여러분과 함께 기쁘게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존경하옵는 의원님들의 한결같은 성원 지도 편달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남은 임기동안 더 많은 일을 위해서 더 많은 우리 종로구의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더불어 보조를 맞추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이렇게 답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존경하옵는 우리 吳錦南 前 副議長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직동 262번지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함

으로써 실질적인 주거환경을 개선할 의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사직동은 주거환경개선지구 및 도심재개발 지정 등으로 도시가스 보급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현재 80%의 보급률을 달성했습니다. 사직동 262번지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과 병행해서 2001년 4월 30일까지 이미 도시가스 배관 250m를 매설하였으나 이 지역의 도시가스 매설배관과 공급관인 본관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사직동 262번지 85호 사이 사직주유소 앞에 도로를 굴착 횡단해야 하는데 이 도로는 2003년 11월까지 도로굴착 제한구간으로 되어 있어서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촌동 1-78호 지역에서 이 지역으로 본관지점의 연결지점을 변경해서 약 250m를 추가 연장하는 방법으로 본 공사가 추진토록 극동가스 회사측과 긴밀히 지금 검토하고 있으며 지금 가설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서부문화복지센터의 진도와 추진방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여기는 사업비 116억원을 투입해서 지하2층 지상3층 규모로 실내 문화체육 센터를 건립코자 하는 것으로 우선 금년도 예산에 토지매입비 3억 9,000만원과 기본설계비 1억 9,000만원 등 5억 8,0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의 진도는 부지매입을 위한 소관 청인 산림청과 국방부와의 사전 협의 및 감정평가는 이미 완료했습니다. 부지상의 건축가능 여부에 대해서 해당 부대와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사직공원 시설변경 심의안건을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고 향후 건축비 소요예산 58억원을 서울시에 지난 4월 19일에 지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본 안건이 상정되어 시설결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부지매입의 소관 부대인 수도방위사령부와 건축 가능여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코자 하며 향후 사업비 확보를 위해 서울시 등 관련기관과 교부금 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당주동 44-3번지에 하수도 맨홀과 물받이가 없어 다가올 장마에 재해 위험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 주변의 배수에 큰 문제점이 없으나 실제로 주민들이 느끼기로는 문제점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7월 10일까지 준설 및 빗물받이가 추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앞서 이면도로에 일방통행도로를 지정하여 주차구획선을 긋고 단속하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가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이 점에 대해서도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구획 확충 및 일방통행 시행을 전문가를 통해서 검토하고 있으나 관내 도로여건이 열악해서 일방통행 시행대상이 부암동, 삼청동 등 오류 개 지역에 불과한 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금년 중에 경찰과 협의해서 시행할 계획이고 기타 지역도 지속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내일도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답변할 시간에 더 많이 상세하게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답변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以煥** 오늘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평소에 보지 못한 질 높고 예리한 훌륭한 질문을 해주시는 것을 보니까 정말 우리 의회가 어느 때보다 또 어디보다 앞서 가고 정상에 올라선 의원님들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대단히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특히 오늘 답변을 해주신 우리 鄭興鎭 區廳長께서는 정말 상세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 데 대해서 의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성의있는 답변에 대해서 감사를 다시 한 번 드리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113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정질문을 여기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제113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정

질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지 못하신 의원님들께서는  
명일 7월 6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구정질문  
을 실시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서울특별시 중  
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  
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16時20分 散會)

○出席議員 18人

金以煥	鄭泰淳	李憲九	吳錦南
千相旭	玄壽漢	安載弘	丁炳煥
劉燦鍾	李炯述	洪承台	金福同
朴鍾植	吳弼根	洪起瑞	李東奎
金正大	宣相善		

○出席關係公務員

區 廳 長	鄭興鎮
副 區 廳 長	盧張鐸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財 務 局 長	董連浩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都市管理局長	河撤昇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保 健 所 長	李星世